

“국악 세계화’ 목표로 콘텐츠 개발”

국립남도국악원 박정경 신임 원장
학예사·국악원 장악과장 등 커리어
국악으로 열린 문화공간 지향
국악 소재 재즈·뮤지컬 등 희망

“예술의 분향 진도에 오게 돼 영광스럽습니다. 2020년 국악원 장악과에서 2년 여 근무했는데 산세와 바다 절경을 다시 마주하니 감회 깊네요. 개원 20주년과 맞물려 ‘원장’이라는 직함에 책임감을 느끼지만, 국악원이 남도 전통문화 대표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 제5대 원장으로 취임한 박정경 신임 원장. 그는 2003년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를 시작으로 장악과, 국악진흥과, 국악연구실 등 기초부터 전통예술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밖에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및 국악원 장악과장을 역임하는 등 예술행정 실무 경력을 다져왔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한편 국악방송 라디오 ‘연구의 현장’ 진행자를 맡으며 전통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당초 그는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교사를 꿈꾸던 이학도였다. 우연히 국악의 매력을 접하면서 전통문화를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그 같은 결심이 모티브가 돼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취임 후 그가 내건 비전은 ‘국악으로 행복한 열린 문화공간’이다. 다소 일상적이지만 그가 남도국악원을 어떻게 이끌어갈 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원장은 “단원들과 관객들이 만족하는 국악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행복’과 ‘열린’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며 “눈높이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장애인 유무 등과 상관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진도 끝자락(인화면 진도대로 일원)에 자리한 국악원은 관광적인 관점에서 이점은 있지만, 동시



국악방송 라디오 ‘연구의 현장’에서 진행을 맡을 당시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에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박 원장은 “‘접근성’은 국악원이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는 지난해 대비 공연 회당 13.6%, 누적 22.9% 증가했다”며 “진도 내 셔틀버스노선 추가 운영, 여행사 등과 연계한 관람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연 관람객 중 진도 거주자가 38%, 타지역 관람객이 62%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관람객이 일정 부분 공연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한 발 나아가 앞으로 코레일이나 선박 여행사와 협력해 관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악의 보존·연구·발굴 측면과 관련 새로운 프로젝트 여부도 물었다. 국악원은 그동안 총서 발행을 비롯해 남도무형문화예술시리즈, 교육용 무용영상 음반 발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박 원장은 기존 사업 중 연수·체험 등은 유지하고 공연 콘텐츠 내실을 다지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 시작한 진도의 향토민요 음반 제작사업은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

브와 연계, 전남도 지역의 토속음악으로 대상을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학술연구 사업은 특성화·전문화로 가닥을 잡고 향후 세부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악 축제’에 대해서는 “한국적 축제 전형으로 키워 세계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또한 지역민을 위한 ‘사랑방 공연’, 국과 토속문화 자료를 아카이빙하기 위한 ‘국문화 자료관’ 구축 등 국악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첨단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다. 옛 음악이나 명인·명창의 연주를 복원하거나 인터랙티브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전통과 현대를 어우르는 국악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바람이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국악 세계화’도 목표로 두고 있어요. 재즈, 클래식, 뮤지컬 등 공연예술과 문학, 미술 등에서도 충분히 ‘국악’이 중심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공연과 외국인 감수 등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난초 명창과 우리가락에 흠뻑~

강도근동편제판소리보존회 ‘청출어람’ 18일 광주예술의전당



이난초 명창이 ‘육자배기 흥타령’을 공연하는 모습.

〈강도근동편제판소리보존회 제공〉

목원대 한국음악과 겸임교수, 강도근동편제 판소리보존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는 이난초는 해남 출신의 소리꾼이다. 2017년 남도민요집 ‘푸른창공에 머무네’를 발매했으며 이듬해 뉴욕 카네기홀에서 ‘판소리 유파대제전’ 초청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이 밖에도 남원시립국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하는 등 남도 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노력을 해왔다.

(사)강도근동편제판소리보존회가 전통예술 공연 ‘청출어람’을 오는 18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인 이난초 명창 등을 초청해 판소리, 단막창극, 한국무용, 민요를 보여주는 무대다.

경기민요 뱃노래에 남도 선율을 입혀 만든 ‘신뱃노래’와 ‘동해바다’로 막을 올린다. 무정하게 떠난 입을 기억 없이 기다리는 심정을 오히려 흥겨운 동살풀이 리듬에 실어 승화시키는 곡이다. 소리에

서은영, 강나루 외 13인. 이어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난초가 소리하며 고수 임현빈이 북채를 잡을 예정이다.

국립남도국악원 안무자 박기량 명무는 진도씻김굿 중 ‘제석굿’에서 추는 ‘복개춤’을 선보인다. 주술적이며 제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춤사위이며 우리나라 창세신화와 당금에기 설화 등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이 밖에도 판소리 ‘수궁가’ 중 ‘상좌다툼’, 단막창극 ‘춘향가’ 중 ‘어사상봉막’, 남도잡가의 대표갈래 ‘육자배기’ 등을 볼 수 있다.

이난초 명창은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소중한 제자들과 함께 전통예술의 가치를 보존, 전승하고 있다”며 “우리 소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객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무료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시는 여전히 물음이 될 수 있을까’

광주전남작가회의 기관지 ‘작가’ 34호 발간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정양주)가 발행하는 기관지 ‘작가’(통권 34호)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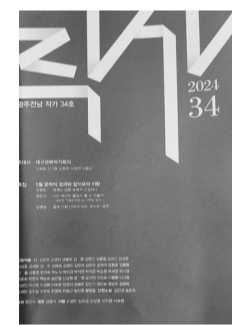
이번 호에는 지난 5월 문학제 심포지엄 ‘5월 문학의 성과와 앞으로의 지향’에서 발표됐던 이영진 시인의 글과 정민구 전남대 교수의 글, 김영삼 평론가의 글이 실렸다.

이영진 시인은 ‘세계는 경험 속에서 신성하다’라는 글에서 5월의 죽음으로 국가 폭력을 맞섰던 이들은 “별들의 장엄을 완성한 신성한 존재들”이었다고 강조한다.

“죽음으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이겨낸 그들은 별들의 장엄을 완성한 신성한 존재들이었다. 인간의 상식과 상상을 훨씬 상회하는 5월의 현상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해명하기 어려운 초월적 공간이었지만 살아남은 자들에게 죄의식과 똑같은 무게의 신성함을 동시에 심어놓은 장소이기도 했다.”

정민구 전남대 교수는 ‘시는 여전히 물음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올해 새롭게 출간된 ‘5월문학총서’ 의미와 시 작품들을 조명했다.

정 교수는 “여전히 시인들은 오월 광주와 관련



하여 자신의 ‘개성적인’ 목소리를 발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풍요와 이채를 더한 시들이 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대구경북작가회의 시인들의 초대 시가 실렸다. 고희림, 신기훈, 오현주, 이정연, 이종암 시인들의 시를 만날 수 있다.

회원 작품으로는 강진주, 김병, 김성신, 김애숙, 김재서, 김환희, 김홍, 나종영, 박노식, 박석준, 박세영, 박종화, 이서영, 정양주, 조현욱, 한종근, 함진원, 황형철 시인의 시가 수록됐다. 김만성 작가와 송은유 작가는 각각 소설을, 양인자 작가는 동화를, 평론은 심영의 소설가가 게재됐다.

서평 부문은 고성만, 김규성, 신남영, 신지영, 이숙현 작가가 동료 작가들의 작품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안무가 10명 중 4명은 계약서 없이 창작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실태조사... 저작권 등록·보유 경험 2.2% 불과

안무가들 10명 중 4명은 공연 계약시 안무저작권을 명시한 창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협회장 라이김)가 최근 안무가들의 안무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현황을 조사한 ‘안무가 실태조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무가 10명 중 4명은 공연 계약시 안무저작권을 명시한 창작 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안무저작권 등록·보유 경험이 있는 안무가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은 국내 안무가 9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안무가들은 계약서 미작성 사유로 47.8%가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관행상 요청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꼽았다.

안무창작물에 안무가명을 기입하는 ‘성명 표시 경험’에 대해서도 “때번 표시했다”는 답변은 10.9%에 그쳤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안무저작권을 등록하지 못한 이유로 “안무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지 몰랐다”,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어려움”고 답했으며 “안무저작권의 효용성 미흡”, “원정업체·소속사와의 계약 문제” 등이 뒤따

랐다.

한편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안무가들 또한 지역에서 ‘창작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선대 무용과 출신인 한국무용가 박태영(비오 무용단 대표)은 “음악분야 등은 ‘창작계약서’라는 별도 양식이 활용되는 반면 안무 분야는 ‘출연 계약서’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별도의 공연 안무 저작권이 명시된 계약서를 사용해야 안무가들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현행 계약서에 기술된 안무창작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몸짓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어 모방이 쉽기에, 더 명확한 기준점을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역에 보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